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33.25	↑ 코스닥	794.19
	(+29.49)		(+19.77)
↓ 금리 (미국 9년)	3.857	↑ 환율 (원-달러)	1328.90
	(-0.020)		(+3.80)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개선안 마련때까지
금지할 것”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해운업 불황에 LX 불참 가능성 매각 힘로 HMM, 유찰설 ‘솔솔’

HMM 매각 본입찰 23일 실시
해운운임 저점에 불확실성 고조
LX그룹은 ‘인수 포기’ 소문도

하림-동원 2곳, 인수 강력 의지
실탄확보 위해 지분처분 등 분주

HMM 매각 본입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인수 후보가 잡히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해운 운임까지 저점을 찍어 매각 불확실성이 고조돼 HMM 매각의 향방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HMM 인수 후보자들의 실사 작업은 완료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 마련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MM 매각 본입찰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당초 하림그룹, 동원그룹, LX그룹의 3파전이 예상됐지만 뒤늦게 뛰어든 LX가 HMM 인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운 운임 하락으로 인한 시황·실적 악화 탓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LX그룹 측은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인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LX그룹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은행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중도

하차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HMM 인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곳은 하림과 동원 두 곳으로 좁혀졌다.

동원그룹은 최근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프리IPO(상장 전 자금조달)를 전제로 CB를 발행하며 현금 마련에 나섰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이자 미국 참치캔 시장 1위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993억원, 순이익도 919억원을 기록한 캐시카우다. 전년 대비 약 20%가량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HMM 인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동원그룹은 동원로엑스, 동원푸드 등 비상장 계열사들의 프리IPO나 동원F&B 사옥 유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원그룹 창립자인 김재철 명예회장이 “동원그룹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라면서 “HMM 인수는 꿈의 정점”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HMM 인수 의지를 밝히며 있다.

하림 그룹도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HMM 인수 의지가 강력하다. 김 회장은 “자금 조달 계획을 완벽히 세웠다”며 “해운 운송부터 식품 제조, 물류까지 사업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하림 그룹은 실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회사인 팬오션은 보유 중이던 한진칼 지분을 1628억원에 처분하며 적극적인 자금 확보에 나섰다. 또한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8000억원 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림그룹은 부지 매각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하림그룹은 HMM 인수 전 초기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리며 인수금융 재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인수자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가 하림그룹을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이번 인수전이 하나의 시험대로 부상한 상태다. 김준영씨는 현재 JKL파트너스에 시니어매니저로서 인수 작업을 돕고 있다.

하림그룹은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HMM 선박 105척과 기존 팬오션이 운영 중인 선박을 더하면 수년 내로 400척이 넘는 선단을 확보하게 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채소 물가 점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비리·부실 얼룩’ 새마을금고 전문 경영인 도입 등 대수술

중앙집권 분산 경영대표이사직 신설
중앙회장 보수 줄이고 4년 단임제로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합병한다. 지배구조 혁신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의혹과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수수 혐의 등 잡음이 이어지자 중앙회가 쇄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뿐 아니

라 국민 신뢰를 함께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앙집권체제를 해소할 위해 ‘경영대표이사’ 직을 신설한다. 전문성을 골자로 지배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대표이사는 금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중앙회장의 임기는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며 역할 또한 대외활동 업무 및 ‘이사회 의장’ 기능에 한정한다.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줄인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적용한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이사직을 새로 창설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 아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이어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관한 업종별 여신한도는 각각 30%, 50%로 확대한다.

<2면에 계속>

/김정산 기자 kimsan119@

LG家 대이은 야구사랑, 구광모 회장이 결심

구 회장, 유광점퍼 입고 잠실 찾아
승리 확정 후 선수들과 함께 환호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야구장에서도 폭심을 이어가며 29년만 프로야구 LG트윈스 통합 우승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구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 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을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올해 리그 우승 LG트윈스가 포스트시즌에서 올라온 KT위즈를 상대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기까지 단 1승만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LG트윈스는 KT 위즈에 6대2로 승리,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구 회장은 이날 차명석 LG트윈스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경기장으로 내려와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 발언도 했다. 기념 촬영과 세레모니 후에는 선수들에 행가례를 받았다.

구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과 함께 뒷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LG트윈스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직접 음료를 꺼내는 구 회장 사진이 공유됐다.

재계는 구 회장이 한국시리즈에 한두차례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실

리주의를 앞세워 좀처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칫 결과가 나쁘면 원망까지 감수해야하기 때문..

그러나 구 회장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 훨씬 밝은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LG트윈스가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팽팽한 전력으로 패배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 구 회장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다른 팬에 사진을 찍어주는 등으로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LG트윈스는 이날 15대 4라는 큰 점수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북러 군사협력, 심각한 위협… 북, 도발시 한미동맹 즉각 응징”
▲장재원 “서울 안 간다”에 황보승희 “알량한 정치 혼자 하리라” **/사진 뉴스1**

▲민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릴레이 피케팅 돌입
▲광주 찾은 김동연 “김포 편입, 지방 죽이기·선거용 속임수”



▲여당, 야 ‘한동훈 거냥막말’에 “참담한 심정… 이성 되찾길”
▲민주 “김건희 특검, 국민 60% 찬성… 여당 응담해야” **/사진 뉴스1**